

# 사이비종교 피해 '종말하자'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했다.

"훌륭한 바라문을 자칭하는 외도 가운데는 거짓의 도를 말하고, 사되고 어리석어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 깨달아 열반으로 향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소견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더더욱 열반으로 가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의 이같은 말씀은 옛날 인도에도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종교집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온갖 종류의 외도들을 단호히 비판하고 부정했다.

지난달 25일 모 신흥 종교단체의 교주 부부가 검찰에 의해 긴급

### 신흥종교단체 교주부부 긴급체포

### 신도상호보증 1천억원대 가로채

체포된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전전한 종교생활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단체가 '2000년 정월 대보름(2월19일) 지구의 기(氣)가 쇠해 종말이 오지만 기수련을 쌓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며 신도들을 유혹, 상호 맞보증 등의 방식으로 1천억원대를 가로챘다는 것은 종말론이 여전히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었다.

사이비 종교 문제는 어제 오늘

이같은 사례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국에서는 남녀가 한데 모여 알뜰로 집회를 여는 사교가 극성을 부리는 등 지하 사교조직이 들끓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사교 교주의 업적행각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미국 역시 700여개의 사교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올집리코 사건으로 충격을 치른 일본도 해마다 100여개씩 늘어나는 신흥종교 문제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이비 종교가 심각한 이유는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사교집단이 국내에만 200여개가 넘고 추종자만도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이비 종교문제는 언제 어

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참된 신앙은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종교생활이란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심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정법'을 강조한 이유도 올바른 진리만이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 근절은 사회의 계몽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개개인의 몫이다. 바른 소견과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성으로 살펴본 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온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허물이 생긴다. 바른 법은 대중을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법을 믿을 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집이합경>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만성 두통을 집처럼 이고 설레임을 상실한 채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에, 명절이란 소외감과 절망을 반복하게 하는 아픔의 징표처럼 간주되고 있다. 고향을 찾는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의무감으로 천리길을 달려가야한다는 압박감이 사전 통풍에 시달린다. 고향을 찾을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같은 참담함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가며 표지된 며칠을 보낸다.

궁핍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지만 나의 유년 시절의 설은 모처럼 얼굴에 화색이 도는 축제였다. 무엇보다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은 새옷, 새신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날 아침 차례를 마치고 개구장이들끼리 물러 다니며 이터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면 까만 동전 일망정 세뱃돈을 받았다. 어른에게 올리는 세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저 납득 없었고 몇마디 덕담과 음식과 나누어주는 세배돈이 그렇게 좋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랜만에 넉넉하게 군것질을 하고 시장 공터에 펼쳐진 가설극장에 가서 서커스를 구경할 수도 있었다. 쪼들리고 지친 날들이 지루하게 이어졌을 어른들도 설날을 전후해서는 한 없이 너그럽고 인

있는 넉넉한 기분을 갖추고 있다. 잔치에 목말라 이상한 이를을 가진 날들에 광분하는 청소년들에게 흥겨운 잔치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설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날 잔치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끝치는 당신들의 잔치를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다. 제사는 어떤가. 매에 게 쫓기는 광처럼 호들갑을 떨며 차례와 성묘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공리에 급급하다. 늙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먹거리 몇점의 애잔함보다는 같이 막혀 고생할 일만 생각한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추위와 불편한 화장실, 친하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설날의 풍경으로 기록된다. 부인네들 예전 어떤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교통 지옥을 통과해서 고향에 당도해서 세뱃돈을 받아와서 나눠주는 세뱃돈이 없던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상에 대한 아련한 추모의 정, 그리운 이들과 벌이는 한바탕 잔치와는 거리가 멀다. 욕망이 도를 부지런을 떨고 돌아와야 되는 속명의 계절이 설날이다.

발상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것이 설날 풍경이다. 정제된 형식에서 기쁨은 내음이 나온다. 차례와 성묘는 엄숙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편의적인 이름 없이 너그럽고 인



이우상 <소설가>

“  
 제의 엄숙성  
 잔치의 흥겨움  
 조화 이뤄야  
 ”

“너무 많은 약식과 생략에 익숙해 버렸다. 율칙과 정식은 결코 우수공수란 행위가 아니다. 참신 수행이나 예법이 엄숙하고 단정하게 거행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엄숙하게 거행되어야 할 의식들을 회화시켜 후손에게 전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잔치에 대한 준비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같은 만이와 깎지에서 풍상을 헤쳐며 살아가는 아우를 그리고 검바섯 자옥한 노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기와 활력을 만드는 축제의 설이 된다면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한들 어찌 짜증이 설렘보다 다를 수 있겠다.



“민중-기독교-정신적 유산” 2000년 유산 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0년 1월 24일 일 오전 11시 장소: 크리스천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막오른 '시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 막이 올랐다. 총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공천 반대인사 명단을 발표,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한 여교조사기위원의 조사결과, 발표된 공천반대인사가 총마할 경우 ‘찍지 않겠다’는 국민이 85%에 달해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 DNA 인공합성 성공

美연구팀, 유기생명체 창조 가능성  
 최근 미국연구팀이 생명체의 기본 구성분자인 DNA를 인공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유기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2년내에 새로운 유기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물을 ‘재설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생명복제보다 한단계 더 진보한 DNA 합성은 과학의 진보와 윤리적 문제 사이에서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종양 세포 등을 탐지, 공격해 소멸시키는 유기체를 만들어 질병치료에 이용한다든지, 생명체의 기능을 조종함으로써 특정기능을 갖게 하

### 절약모르는 신세대

새옷 사며 헌옷 버리기  
 “새옷을 받은 비구들은 한웃으로 무엇을 합니까?” “남은 법의로는 웃옷을 만듭니다.” “남은 웃옷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속옷을 만듭니다.” “남은 속옷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담요를 만듭니다.” “남은 담요로는 무엇을 합니까?” “갈개를 만듭니다.” “남은 갈개로 무엇을 합니까?” “발땀의 수건을 만듭니다.” “발땀의 수건이 낡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잘게 썰어 흙에 섞어 벽을 바르거나 앉을 자리를 만듭니다.”

《자타카》에 나오는 파사익왕과 아난존자의 대화다. 파사익왕은 아난존자로부터 수행자들의 검소한 생활과 절약의 의미를 깨달고 많은 웃을 보시했다.

“새 옷을 사면 헌 옷은 버린다”는 신세대들이 늘고 있다. 동대문상가 옷가게들의 경우 이같이 버려지는 티셔츠, 청바지가 하루 평균 100여벌이나 되고 신발, 가방, 패션소품, 고급선들, 가죽제품 등 값싼 물건도 찍지 않다고 한다. 유행만 좇는 젊은이들의 그릇된 소비성향 때문이다.

“절약”을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그 마력을 가르치는데 부모와 사회가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난존자와 파사익왕의 대화를 한번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 대구지하철 또 붕괴사고 8년간 413명 사상

지난달 23일 일어난 대구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지하철은 지난 95년 4월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8년간 모두 413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도시의 지하철에서 1년 평균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면 시체밭으로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일이다.

아마 정부당국이나 관련자 중 ‘3명밖에 죽지 않았는데...’라며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다보니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사고 관련 관계자들은 이런 부처님 말씀을 명심하기 바란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업만 남을 것이다.”

### 사이버 도박 국내 성행 100만명 넘을 듯... 외화유출 심각

최근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달 적발한 외국 연계 국내 도박사이트 14개를 통해 도박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이버도박을 한 내국인은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틀치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도박을 하는 사람은 국내에만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경찰청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도박으로 인해 연간 수백만달러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후 27만달러의 외화가 외국 도박사이트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광고서나 기업체, 학교 등 사회 구성구석이 이에 민연돼 가고 있는 것은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부처님께서도 도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제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선생자경>

##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프로그램	주요인사	시간
05	00 아침예배 (승가대스님)		05
05	05 아침예배 (승가대스님)		05
06	00 뉴스 (이승훈)		06
06	10 경리부 (원호스님-이정희ANN)		06
06	30 고승연 (구민-이정희ANN)		06
06	40 교리강좌 (해정사)		06
07	00 뉴스 (이정희ANN)		07
07	10 신년 365일 (김용환)	05 신년 365일(김용환)	07
07	15 백종준의 아침제1부 (백종준)	10 경선 이야기 (최희스님-최은경ANN)	07
08	00 BBS 뉴스특보 (모노딩, 장수연ANN) (08:25-08:30 L)	00 명교회 (전성진ANN)	08
08	30 백종준의 아침제2부 (이정희ANN) (08:30-08:35 L)	20 사찰순례 (최은경ANN)	08
09	00 뉴스 (이정희ANN)		09
09	05 대한불교의 전통 (전성진) (구) 개혁신단(도원스님)		09
09	00 뉴스 (이정희ANN)		09
10	05 차비의 전차 (해사신선 노스님 최은경ANN)	00 라디오명사 (이정희ANN)	10
11	00 뉴스 (이정희ANN)		11
11	10 명교회 스튜디오 특집(명교회)		11
12	00 경오종합뉴스 (이정희/최은경ANN) (12:15-12:20 L)		12
12	20 최명준의 백화기요 1부 (최명준)	10	12
13	00 뉴스 (이정희ANN)		13
13	05 최명준의 백화기요 2부 (최명준)		13
14	00 뉴스 (이정희ANN)		14
14	10 키오 대영 (정유익/장수연ANN)	05 우리 가문의 향기 (송혜진)	14
14	20 고승연의(재) (구민) (재)		14
15	00 뉴스 (이정희ANN)		15
15	10 BBS 생활상담 (이정희ANN) (L)	05 영요 교양 강좌 (최은경ANN)	15
15	15 (이정희-김용환) 수(승가대-도원스) 특(한명-김종호) (의(의-선종대) 특(명유-해정사)		15
16	00 뉴스 (최은경ANN)		16
16	10 음악여행 (이정희ANN) (L)	05	16
16	00 뉴스 (최은경ANN) (L)	00 장영희의 서간(이정희ANN)	16
17	10 부활을 위하여 (이정희ANN-최은경ANN)	20 영요초대의(김해정)	17
18	00 저녁예배 (승가대스님)		18
18	15 최명준의 백화기요 (정명준)	15 김미녀 눈사람(최희스님)	18
19	00 BBS 저녁종합뉴스 (이정희/이승훈ANN)		19
19	30 부활의 경배 (이정희)	10 길을 찾아서 (김명)	19
19	35 최명준의 백화기요 (정명준)		19
20	00 뉴스 (이정희ANN)		20
20	05 김명준의 다시와살고싶어 (김명준)		20
21	00 뉴스 (이정희ANN)		21
21	10 신년 365일(재) (김용환)		21
21	15 경리부(재) (원호스님)		21
21	30 번안(재) (한문)		21
22	00 교리강좌(재) (해정사)		22
22	05 최명준의 (이정희ANN)		22
23	00 뉴스 (이정희ANN)		23
23	10 BBS 역사강좌 (이정희)	05	23
24	00 강예기(재) (노기스님)	00 그이름을 잊지 마라 (명기희)	24
24	00 명망의 명사 (이정희ANN)		24
01	05 사후의명 (한명준)		01